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Working Mothers of Dual-incom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Focusing on the Parents and Respected Children Parent Education Program

김민정¹ 김수지² 김정은³ 손한결⁴ 김태선⁵

Min-Jung Kim¹ Soojee Kim² Jung-Eun Kim³ Han Gyeol Sohn⁴ Tae-Sun Kim⁵

ABSTRACT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S1A3A 2924375).

1 제1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2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특임교수
(e-mail : soojee0316@naver.com)

3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4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5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Objective: This study employed a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RPRC) 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or working mothers of dual-incom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Methods: A total of 32 working mother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n intervention group (n = 16) and a control group (n = 16).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differences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in term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were compared in both groups.

Results: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ir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efficacy, whereas mothers in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role satisfaction between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PRC parent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bring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working mothers' parenting confidence, which can be crucial for the future developmental outcomes of their children.

key words RPRC parent education program,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parental role satisfaction.

I. 서론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

였다. 변화된 사회구조와 가족체계 안에서 취업모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으며(Greenhaus, Parasuraman, & Collins, 2001),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이상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압박, 역할긴장, 역할과중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김애란, 2010; Coverman, 1989).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시점 또는 첫째아 출산 시점에 40% 정도의 취업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한다고 보고하였다(박중서, 2016). 기혼 취업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육정책 및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의 역할과 책임수준을 묻는 현실에서 취업모는 자녀양육을 위한 에너지와 시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 사회 내 남편의 가사분담이 아내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며, 자녀를 돌보는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또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두 배 이상 수행한다는 것(통계청, 2014)은 취업모의 이중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취업모들은 직장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느끼며(정유진, 정귀언, 2015), 양육스트레스 또한 남편에 비해 더 높았다(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Duxbury & Higgins, 2001). 특히 맞벌이 가정 취업모의 행복감이나 역할만족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김민정, 2006)에서, 여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느냐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양육부담의 형태를 파악하여 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곽정인, 2000; 최정옥, 2000; 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Sitimina, Fikryb, Ismailc, & Husseinb, 2017)이나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부모역할만족도 및 역할갈등에 미치는 요인탐색(김혜신, 김경신, 2003; 노진아, 2003; 한은주, 2000; Barnett & Marshall, 1992; Cooklin et al., 2015; Deuling & Burns, 2017; Hill, 2005) 등이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물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문혁준, 2000; 박영순, 2005; 박정임, 2017; 정보미, 김낙홍, 2016; 최혜진, 2003),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박정자, 2010; 이남희, 2014; 조은주, 2017).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현재는 여러 형태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교육을 받는 수요자의 접근성으로 인해 취업모들이 겪는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의 교육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모들이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가능한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장현숙, 2001)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역할은 어머니의 취업 자체보다는 취업모의 심리적 상태, 양육에 대한 자신감 및 가정의 여러 가지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김혜신, 김경신, 2003; 하쾌남, 정민자, 2017). 이는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Shaw, Bell, & Gilliom, 2000),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기초를 다

지게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효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요인들을 보고해 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부모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을 하거나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부모역할 수행이나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부모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은 친사회적 능력이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Bronstein, Ginsberg, & Herrera, 2005; Knafo & Plomin, 2006; Menon, Tobin, Corby, Hodges, & Perry, 2007), 비일관적,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을 비롯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Knutson, DeGarmo, & Reid, 2004; Querido, Warner, & Eyberg, 2002). 특히 취업모의 경우, 양육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자녀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거나 자녀가 자신의 힘든 삶의 미래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가지기도 하였다(김나현 등, 2013). 그러나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나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도현심 등, 2014; 한경남, 2014), 1년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 연구들(Breitenstein et al., 2012; Doh et al., 2016)을 통해 부모교육은 긍정적 양육을 위한 중요한 중재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양육에 있어서의 죄책감을 덜고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를 잘 관리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는 인지적 특성으로,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김민정, 2008; 김현미,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 반응적, 온정적이고 비차별적이거나 자녀를 감독하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어(Desjardin, 2003; Leerkes & Crokenberg, 2002),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녀를 유능한 존재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취업모들이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잃게 되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게 된다(하쾌남, 정민자, 2017). 그러나 취업모가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애정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혁준, 2000), 취업모의 경제수준이 높고 안정될수록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이병례, 한세영, 2007),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i, Spector, Cooper, & Lu, 2005). 자녀 양육과 관련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죄책감을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대상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효능감이 증진된 연구(한경남, 2014)는 부모교육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으로(양소남, 2011), 부모양육행동과 부모역할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고,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업모들이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역할 만족도는 이후 부모역할 수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문혁준, 2001; 이병례, 한세영, 2007), 아동의 주도성, 사교성 및 협조성 등의 사회적 능력이나 아동의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김민정, 2006; 김상미, 2013)에서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만족도는 단일 차원의 개념보다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인 만족감,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의 지지, 부모역할 갈등 및 자녀의 지지 등을 포함한다(현은강, 조복희, 1994). 부모역할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이기순, 2003), 부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적극적일수록(정현희, 2003), 일-가정의 갈등이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김안나, 권영숙, 2014; 배지혜, 서혜영, 이숙현, 2002)에서, 부모공동양육이나 양육친화적인 부부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가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부모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Bronfenbrenner & Morris, 2007; Parke, 2004), 이들이 건강한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가 있다. 부모역할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이론적, 실천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자녀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정보가 많은 취업모일수록 부모역할 수행정도가 높았고,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미래의 자녀발달을 예측하였으며,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높아졌다(박정자, 2010; Massengill, 2004).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이나 부모역할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2006;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박보경, 최미경, 2013; 이해진, 2014; 한경님, 2014).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 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부모교육이 취업모의 의사소통능력이나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정도였다(구희정, 2016; Hartung, & Hahlweg, 2010; Hawkins, Roberts, & Tomi-Ann, 1992).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는 강조되지만, 부모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모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취업모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고려하여(문혁준, 2000; 박영순, 2005), 취업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에서의 어려움과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낮추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근거가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도현심(2012)의 ‘부모존경-자녀존중(이하,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1994년에 개발이 시작된 이래 여러 연구들(도현심 등, 2013; 도현심 등, 2003; Kim, Doh, Hong, & Choi, 2011)을 거쳐 2012년에 『첫 부모역할 책』의 발간과 함께 최종 완성된 증거 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이다. 부존자존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Adler와 Dreikurs의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하는 평등성 이론에 바

탕을 두고 있으며(Dreikers & Soltz, 1964), 국내문화와 정서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양육관련 내용으로, 부모들이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지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됨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아동의 발달이나 문제행동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지도방법이나 기술을 훈련하도록 한다.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원형으로 하여, 최근 들어 걸음마기, 유아기 및 학령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 보육교사 및 양육시설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민정, 2008; 김민정, 2015; 김민정 등, 2015; 김수지, 송승민, 윤지은, 신나나, 2015; 도현심 외, 2016; 도현심 외, 2013; 송승민 외, 2015; 이선희, 도현심, 이운경, 오혜진, 신정희, 2016; Doh et al., 2016; Kim et al., 2011 등).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교육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등의 양육관련 변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보육교사나 기관장의 경우는 아동 및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증거기반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전과 환경, 아동의 다양성과 보편성, 전생애적 발달, 양육에서의 다정함과 단호함, 정상시의 관심과 격려, 경청과 공감, 논리적 설명, 실수는 학습의 기회, 잘못된 행동의 원인 밝히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부모공동양육, 모델로서의 부모에 관한 자녀양육의 12가지 기본개념과 유아기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는 부모역할, 기본생활지도,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맞벌이 가정의 상황에 맞도록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1회기에는 유아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이해로,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족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을 겪으며, 부부관계가 단절되거나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김혜신, 김경신, 2003). 그러므로 부부의 원활한 관계 안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분담하여 취업모의 심리적, 신체적인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2회기는 유아기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자녀의 또래관계를 위해 양적인 시간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는 죄책감을 덜고, 또래관계에서의 질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포함시켰다. 3회기는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12가지 기본개념을 강조하는 회기로, 부모공동양육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4회기에는 자녀양육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술로, 자녀와의 질적인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취업모들은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양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질 높은 모-자녀 시간을 만들며 평소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점(Hoffman, 1989)에서, 질적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6회기는 기본생활습관이나 아동행동지도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취업모들이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로 맞벌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동영상 자료를 통해 역할

극이나 실습 및 토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양육에 대한 신념,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이론과 실제적인 내용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재집단 취업모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 취업모들과 비교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에서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로, 본 부모교육에 참여한 중재집단은 23명, 통제집단은 30명이다. 중재집단은 6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5회 이상 참가한 경우로 최종적인 연구대상은 중재집단 16명과 통제집단 16명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6명(50%), 여아가 16명(50%)이었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4.31세($SD = .97$)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10명(31.2%), 첫째가 12명(37.5%), 둘째가 8명(25.0%), 셋째 이상이 2명(6.3%) 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59세($SD = 2.27$)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졸업이 19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6명(18.7%)이었다(<표 1>).

<표 1> 연구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N = 32)

구분	중재집단(N = 16)	통제집단(N = 16)	전체
	빈도(%)	빈도(%)	
자녀 성별			
남아	8(50.0)	8(50.0)	16(50.0)
여아	8(50.0)	8(50.0)	16(50.0)
자녀 연령			
만 3세	4(25.0)	3(18.8)	7(21.9)
만 4세	5(31.3)	7(43.7)	12(37.5)
만 5세	7(43.7)	6(37.5)	13(40.6)

〈표 1〉 계속

구분	중재집단(N = 16)	통제집단(N = 16)	전체
	빈도(%)	빈도(%)	
자녀 출생순위			
외동이	4(25.0)	6(37.5)	10(31.2)
첫째	7(43.8)	5(31.3)	12(37.5)
둘째	4(25.0)	4(25.0)	8(25.0)
셋째 이상	1(6.2)	1(6.2)	2(6.3)
어머니 연령			
30-39세	14(87.5)	13(81.3)	27(84.4)
40-49세	2(12.5)	3(18.7)	5(15.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3(18.8)	1(6.2)	4(12.5)
전문대 졸업	2(12.5)	1(6.2)	3(9.4)
대학교 졸업	8(50.0)	11(68.8)	19(59.4)
대학원 이상	3(18.8)	3(18.8)	6(18.7)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하여 평가되었고,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으면 각 변인의 특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1)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Schaefer(1965)가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수정·변안한 박영애(1995)의 척도에 기초한 김문정(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구체적으로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및 허용·방임(1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온정·수용의 경우 “나는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낸다.”, “나는 아이가 한 일이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거부·제재의 경우 “나는 아이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등이, 허용·방임의 경우 “나는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이든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요인별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온정·수용은 .77과 .75, 거부·제재는 .77과 .80, 허용·방임은 .79와 .82이었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e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한 김민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효능감(8문항)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9문항) 등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경우 “나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부모 역할은 할 만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등이,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경우 “나는 아침에 아무 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느낌으로 일어나고, 밤에도 그런 느낌으로 잠자리에 든다.”, “부모로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이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73과 .67,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57과 .63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온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다른 부존자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들은 .70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김민정 등, 2015; 이선희 등, 2016).

3)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척도를 이승현(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반적 만족도(11문항), 부모-자녀관계(10문항), 배우자 지지(10문항), 부모역할 갈등(11문항), 자녀의 지지(6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 만족도의 경우 “나는 자녀가 내 생활에 활력을 주어 만족한다.”, “나는 아이가 성장해감을 보게 될 때 뿌듯하다.” 등이,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나는 아이와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기쁘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 등이, 배우자 지지의 경우 “남편은 아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의논하는 편이어서 좋다.”, “남편이 비교적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나는 이에 만족한다.” 등이, 부모역할 갈등의 경우 “나는 가끔씩 아이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척 짜증나게 한다.” 등이 포함된다. 자녀의 지지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는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다.”, “아이는 나의 좋은 말상대가 되어준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일반적 만족도는 .81과 .67, 부모-자녀 관계는 .65와 .75, 배우자 지지는 .95와 .96, 부모역할 갈등은 .83과 .80, 자녀의 지지는 .62와 .7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이용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후에 각 중계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시 이전과 후에 연구변인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중재집단	O_1	X_1	O_2
통제집단	O_3		O_4

O_1 O_3 : 사전검사

X_1 : 부모교육 프로그램

O_2 O_4 : 사후검사

1) 1단계: 사전조사

본 연구의 중재집단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27명이 모집되었다. 개별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23명의 어머니들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소그룹 진행의 이점과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개의 중재집단에 배치되었다. 통제집단은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집하였는데, 본 연구에 대해 어머니들에게 설명을 진행한 후 이에 동의한 어머니 30명이 포함되었다. 사전조사는 2017년 5-6월에 부모교육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약 30분가량 소요되었다. 통제집단은 비슷한 시기에 본 연구자들이 통제집단에 포함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교사를 통해 30명의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한 질문지를 동봉하여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회수하였다.

2) 2단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3명의 중재집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주 1회에 2.5시간씩 6주 동안 실시하였다. 기존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주 1회, 2시간씩 8회기로 운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기존 6회기로 구성하되 한 회기당 2시간 30분씩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모들이 실제 양육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소그룹 운영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참여 가능한 요일에 따라 각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참가자는 5~11명이었다(평균 7.6명). 이 외에도 베이비시터 제공을 통해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각 집단별 부모교육은 집단 1(7명)과 집단 2(11명)는 5월 26일~6월 30일에, 집단 3(5명)은 6월 14일~7월 19일에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오후 6:30~9:00로 2시간 30분가량 실시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매 회기 도입, 전개 및 마무리 단계로 운영하였다. 도입에서는 부모가 일주일 동안 변화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양육 관련하여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기록지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개에서는 회기별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이와 관련한 역할극이나 실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동영상 자료를 포함하였다. 마무리에서는 양육 관련하여 토론하고 싶은 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본 회기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강사 및 부모들간에 소속감과 친밀감을 증진하고 양육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SNS를 운영하였다.

부모교육 강사는 아동학 전공 박사 3명으로, 수년간의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의 리더를 한 경험이 있고 본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전문가 훈련을 받은 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다. 각 집단 간 동질성을 위해 연구진과 강사와의 지속적인 대면회의와 온라인 SNS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방법 및 내용을 공유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맞벌이 취업모들이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표 3>).

<표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교육 내용

회기	주 제	교육 내용
1	유아기 아동과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서의 나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부모역할 • 아동은 누구인가? • 기질의 개인차, 아동발달의 개념
2	유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의 원리 •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취업모의 양육행동 • 형제자매관계
3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기본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정함과 단호함에 근거한 자녀양육 유형 • 상호존중적 자녀양육의 기본 개념
4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 기술: 예방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 • 올바른 칭찬과 벌 • 감정완화시간, 질적 시간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법, 선택권
5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실제(1): 기본생활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습관, 기상 및 취침 시간, 가사, 성교육
6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실제(2): 아동행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줍음, 공격성, 떼쓰기, 거짓말 등의 부적응행동의 특성, 원인, 예방법 및 해결방법 • 마무리

3) 3단계: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중재집단의 경우 마지막 회기인 6회기를 마친 후 사전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로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비슷한 시기에 연구자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사전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들 가운데 사후조사에 응답한 경우는 중재집단은 21명, 통제집단은 30명이었다. 그러나 중재집단 가운데 부모교육 6회기 중 5회기 이상 참가한 어머니들이 16명으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수로 배정하기 무선표집 방법에 의해 각각 16명씩, 총 32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

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조사 결과에서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두 집단 간에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각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본 분석에서 앞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변인들 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 = -1.93 \sim 1.28, p > .05$). 이에 각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측정된 각 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에 미친 영향을 사전 및 사후조사의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재집단의 경우 거부·제재의 사후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2.88,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중재집단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인 거부 및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들 중 온정·수용과 허용·방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

($N = 32$)

변수	그룹	사전		사후		t
		M	SD	M	SD	
온정·수용	중재집단	3.02	.27	3.12	.30	-1.51
	통제집단	3.23	.33	3.23	.27	-.11
거부·제재	중재집단	1.78	.42	1.56	.30	2.88*
	통제집단	1.63	.37	1.65	.43	-.46
허용·방임	중재집단	1.79	.28	1.71	.38	1.43
	통제집단	1.96	.42	1.87	.32	1.45

* $p < .05$.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중재집단에서만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2.31,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 후, 중재집단의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이전보다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두 가지 하위요인과 전체 양육효능감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 (N = 32)

변수	그룹	사전		사후		t
		M	SD	M	SD	
부모효능감	중재집단	2.78	.30	2.85	.30	-1.01
	통제집단	2.80	.33	2.91	.25	-2.10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중재집단	2.11	.32	1.91	.33	2.31*
	통제집단	2.02	.29	2.02	.31	-.70

* $p < .05$.

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의해 측정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그 결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하위요인인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 지지, 부모역할 갈등 및 자녀의 지지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중재집단: $t = -1.64 \sim 1.76, ps > .05$, 통제집단: $t = -2.04 \sim 1.00, ps > .05$).

<표 6>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 (N = 32)

변수	그룹	사전		사후		t
		M	SD	M	SD	
일반적 만족도	중재집단	3.32	.28	3.34	.25	-.25
	통제집단	3.37	.37	3.49	.19	-2.04
부모-자녀관계	중재집단	2.79	.22	2.89	.30	-1.64
	통제집단	2.91	.32	3.02	.29	-1.95
배우자 지지	중재집단	2.68	.64	2.65	.72	.17
	통제집단	3.00	.57	3.05	.47	-.71
부모역할 갈등	중재집단	1.99	.46	1.84	.39	1.76
	통제집단	1.99	.47	1.87	.39	1.00
자녀의 지지	중재집단	3.36	.30	3.26	.36	1.06
	통제집단	3.23	.36	3.29	.41	-.5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중재집단의 경우는 6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사전 동질성이 확인된 두 집단 간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중재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의 경우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온정·수용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양 집단 모두에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부모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문혁준, 2000; 박영순, 2005; 박정임, 2017; 장현숙, 2001; 정보미, 김낙홍, 2016; 채영희, 2008; 최형윤, 2007)이나 맞벌이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애란, 2010; 이정숙, 1999; 이남희, 2014)에 집중되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부모의 거부적·통제적이거나 허용적·권위주의적,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감소한 연구결과들(김상언, 2015; 김중운, 이명순, 2009; Fujiwara, Kato, & Sanders, 2011; Trotter & Rafferty, 2014)과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기 및 학령 초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강압적·거부·제재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한 선행연구들(김민정 등, 2015; 도현심 등, 2013)에 이어,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에게도 유사하게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녀를 거부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은 유아기 발달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적 태도의 중요성 및 유아행동 지도를 위한 예방 및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올바른 양육신념을 획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온정·수용,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에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인, 혹은 민주·자율적, 애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증가되고 방임적 양육태도가 감소한 연구들(구희정, 2016; 김상언, 2015; 김중운, 이명순, 2009; 진이진, 이미옥, 2011; Shaw, Dishion, Supplee, Gardner, & Arnds, 2006)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이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의 방법을 배웠다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자녀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유아가 어머니보다 대리양육자와 함께 보내거나 상호작용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다(이금진, 2006)는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모교육은 대체로 9회기 혹은 그 이상 진행될 때 효과적이라고 한 선행 연구결과들(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3;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박희경, 2013; 조경란, 함경애, 천성문, 2013)과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상황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김나현 등, 2013; 박정임, 2017), 6회기 부모교육 참여 후 양육행동의 의미 있는 변화가 측정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업모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교육에 참가하는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다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따르는 한계점 또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금진, 2006).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자녀 돌봄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이버 및 대면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거나 배우자나 조부모 등 대리양육자들을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둘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가에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감소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조사 점수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잘 관리하는데 동기를 제공하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킨 연구들(구희정, 2016; Bor, Sanders, & Markie-Dadds, 2002)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이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극복하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느낌,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느끼거나 부모역할을 긴장되고 불안하게 여기는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에 불안하거나 불만족하지 않고 양육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거나 덜 통제적인 양육을 하는 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체·인지·사회·정서적 발달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문혁준, 1999; 안지영, 박성연, 2003; 박정자, 2010; Mondell & Tyler, 1981)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교육시간을 통해 ‘워킹맘’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격려와 지지의 장을 경험한 결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양육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학습하게 되는 경험은, 자녀양육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아기 및 학령 초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김민정 등, 2015; 도현심 등, 2013; 이선희 등, 2016)에 이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에게도 부분적으로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모로서 자신이 배울 만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어머니의 역할에 익숙하며, 양육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부모역할 효능감에서는 중재집단, 통제집단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로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갈등 상황에 있으므로 충분히 자녀를 잘 안다고 여기거나, 개인적인 기대에 부합할 만큼 자녀를 돌보고 있고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역할 효능감이 단기간의 교육으로 충족되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이 바람직한 양육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달리 부모역할만족도의 경우에는 중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교육을 통해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역할만족감(한경님, 2014)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윤혜미, 2000)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맞벌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회기라는 교육기간이 부모역할의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역할 갈등, 배우자 지지,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의 지지 등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역할만족도는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을 예측하거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장영심, 조영숙, 2014), 특히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이들의 연령과 학력, 부의 학력, 부모의 직업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배우자 지지, 역할 갈등, 가정 내 주양육자에 대한 인식, 가족형태, 직장의 근무시간의 융통성 및 직장의 분위기, 자녀의 보육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환경의 질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강수경, 정미라, 김민정, 2015; 최외선, 제석봉, 이경민, 2007; Olson, Frieze, & Detlefsen, 1990).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양육행동이나 양육효능감의 경우는 교육을 통한 어머니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반면,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부관계, 직장 등 사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들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련 변인인 개인적·관계적·사회적·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한 다차원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취업모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8회기 부존자존 프로그램을 6회기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검증과 관련하여 추후에는 8회기로 진행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사전-사후 조사 간의 차이만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추후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추후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공동양육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더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을 참가자로 선정함으로써 아버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모든

변인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보고자의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관찰 및 아버지나 조부모, 다른 대리양육자들의 보고와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도 그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증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요구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은 증진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에 대한 변화를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이후 아동발달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현장,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수경, 정미라, 김민정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271-291.
- 곽정인 (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부모역할 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정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군인가정 어머니를 위한 사이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2), 21-36.
- 김기현 (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탐색. **한국생활과학지**, **9**(1), 71-84.
-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6). 맞벌이 가정의 아동복지감과 맞벌이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7**(2), 15-37.
- 김민정 (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5). 보육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311-332.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김수지, 송승민, 신정희 등 (2015). 학령초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36**(3), 35-57. doi:10.5723/KJCS.2015.36.3.35
- 김상미 (201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언 (2015). 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2**(2), 1-11.
- 김선희 (2006).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 송승민, 윤지은, 신나나 (2015). 아동 그룹홈 시설장들의 부모교육 참가 과정에서 나타난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0**, 247-277.
- 김안나, 권영숙 (2014).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375-384. doi:10.14400/JDC.2014.12.10.375
- 김애란 (2010). 취업모를 위한 On & Off-Line 통합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운, 이명순 (2009). 관계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2**(1), 61-76.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신, 김경신 (2003).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 노진아 (2003).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과 직업변인에 따른 양육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2012). 첫 부모역할 책. 서울: 지식채널.
- 도현심, 권정임, 박보경, 홍성훈, 홍주영, 황영은 (2003).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4), 103-121.
-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박보경, 최미경 (2013). 아동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을 기초로. **아동학회지**, **34**(3), 151-177. doi:10.5723/KJCS.34.3.151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doi:10.5723/KJCS.2014.35.4.179
- 도현심, 송승민, 이운경, 김민정, 신나나, 김태우 (2016).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37**(3), 147-166. doi:10.5723/KJCS.2016.37.3.147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 (2000).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연구: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20**(1), 25-42.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영순 (2005).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관한 취업모의 인식과 요구 조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임 (2017). 맞벌이 가정의 부모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자 (201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맞벌이 직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서 (2016).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36**, 18-36.
- 배지혜, 서혜영, 이숙현 (2002). 사무직 남성의 “일·자극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43-64.
- 송승민, 김수지, 김민정, 조인영 (2015). 그룹홈 시설장의 청소년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215-251.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소남 (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가족과 가족치료, **19**(1), 103-126. doi:doi.org/10.21479/kaft.2011.19.1.103
- 윤혜미 (2000). 부모교육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3**, 246-269.
- 이기순 (2003). 주부의 취업여부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 연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진 (2006). 의사소통장애 유아를 가진 취업모의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1**(3), 33-52.
- 이남희 (2014). 취업모의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집단 상담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상담교칭연구**, **2**, 121-144.
- 이병례, 한세영 (2007). 취업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9-35.
- 이선희, 도현심, 이운경, 오혜진, 신정희 (2016).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존경

- 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37**(2), 95-109.
- 이승현 (2008). 맞벌이가족을 위한 탄력적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27-47.
- 이정숙 (1999). 취업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전주기전여자대학 논문집**, **19**, 61-77.
- 이혜진 (2015). NLP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심, 조영숙 (2014).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45-163.
- 장현숙 (2001). 맞벌이 가정의 부모교육. **지성과 창조**, **4**, 171-188.
-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박희경 (2013). 메타분석을 통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65-387.
- 정보미, 김낙홍 (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아동교육**, **25**(3), 377-393.
- 정유진, 전귀연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대리양육 유형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타인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4), 673-691.
- 정현희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7**, 11-19.
- 조경란, 함경애, 천성문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2), 369-395.
- 조은주 (2017). 관계놀이상담 기반의 부모교육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이진, 이미옥 (2011). APT 부모교육을 병행한 집단미술치료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8**(2), 309-324.
- 채영희 (2008). 부모교육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과 요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 제석봉, 이경미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 연구**, **4**(1), 87-108.
- 최정욱 (2000).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애착 안정성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운 (2007). 유아교육기관의 부모 교육·부모 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 (2003). 취업모의 부모교육 참여실태와 요구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동향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하재남, 정민자 (2017). 유아기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균형, 회복탄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1), 111-134.
- 한경남 (2014).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역할만족

- 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87-315.
- 한은주(2000).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Barnett R. C., & Marshall N. L.(1992). Worker and mother roles, spillover effec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Women & Health*, *18*(2), 9-40. doi:10.1300/J013v18n02_02
- Bor, W., Sanders M. R., & Markie-Dadds, C. (2002). The effects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on preschool children with co-occurring disruptive behavior and attentional/hyperactive difficult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571-587. doi:10.1023/A:1020807613155
- Breitenstein, S. M., Gross, D., Fogg, L., Ridge, A., Garvey, C., Julion, W., & Tucker, S. (2012). The Chicago Parent Program: Comparing 1-year outcomes for African American and Latino parents of young childr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5*(5), 475-489. doi:10.1002/nur.21489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7).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pp. 793-828). New Jersey, NJ: John Wiley & Sons. doi:10.1002/9780470147658.chpsy0114
- Brooks-Gunn, J., Han, W. J., & Waldfogel, J.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4), 1052-1072. doi:10.1111/1467-8624.00457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doi:10.1007/s10964-005-8946-0
- Cooklin, A. R., Westrupp, E., Strazdins,L., Giallo, R., Martin, A., & Nicholson, J. M. (2015). Mothers'work-family conflict and enrichment: Associations with parenting quality and couple relationship.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1*(2), 266-277. doi:10.1111/cch.12137
- Coverman, S. (1989).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67*(4), 965-982. doi:10.1093/sf/67.4.965
- Desjardin, J. 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euling, J. K., & Burns, L. (2017). Perfectionism and work-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s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6*, 326-330. doi:10.1016/j.paid.2017.05.013
- Doh, H. S., Kim, M, J., Shin, N., Song, S. M., Lee, W. K., & Kim, S. (2016).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based on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for mothers of preschool-aged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8*, 115-124. doi:10.1016

/j.chilyouth.2016.06.015

- Duxbury, L. E., & Higgins, C. A. (2001). *Work-life balance in the new millennium: Where are we? Where do we need to go?*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Dreikurs, R., & Soltz, V. (1968). *Children: The challenge*. NY: Meredith Press.
- Fujiwara, T., Kato, N., & Sanders, M. R. (2011). Effectiveness of group positive parenting program (triple p) in changing child behavior, parenting style, and parental adjustment: An intervention study in Japa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6), 804-813. doi:10.1007/s10826-011-9448-1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reenhaus, J. H., Parasuraman, S., & Collins, K. M. (2001). Career involvement and family involvement as moderators of relationship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withdrawal from a professio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2), 91-100. doi:10.1037//1076-8998.6.2.91
- Hartung, D., & Hahlweg, K. (2010). Strengthening parent well-being at the work-family interface: A German trial on workplace Triple P.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0(5), 404-418. doi:10.1002/casp.1046
- Hawkins, A. J., & Roberts, T. A. (1992). Designing a primary intervention to help dual-earner couples share housework and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1(2), 169-177. doi:10.2307/584829
- Hill, E.J. (2005). Work-family facilitation and conflict, working fathers and mothers, work-family stressors and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93-819 doi:10.1177/0192513X05277542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pp. 236-274).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M. J., Doh, H. S, Hong, J. S., & Choi, M. K. (2011). Social skills training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aggressive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in South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6), 838-845. doi:10.1016/j.chilyouth.2010.12.001
- Knafo, A., & Plomin, R. (2006).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o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lin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47-164. doi:10.1037/0022-3514.90.1.147
- Knutson, J. F., DeGarmo, D. S., & Reid, J. B. (2004). Social disadvantage and neglectful parenting as precursors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child behavior: Testing a theoretical model. *Aggressive Behavior*, 30(3), 187-205. doi:10.1002/ab.20016
- Leerkes, E. M., & Croc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doi:10.1207/S15327078IN0302_7

- Massengill, D. (2004). Do parents benefit? Perspectives of low-income parents who received a free early readiness program for their chil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1(3), 179-185. doi:doi.org/10.1023/B:ECEJ.0000012136.71443.9e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Hodges, E. V. E., &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6), 1627-1639. doi:10.1111/j.1467-8624.2007.01089.x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doi:10.1037/0012-1649.17.1.73
- Olson, J. E., Frieze, I. H., & Detlefsen, E. G. (1990). Having it all? combining work and family in a male and a female profession. *Sex Roles*, 23(9-10), 515-533. doi:10.1007/BF00289766
- Parke, R. D.(2004) Development in the famil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56-399. doi: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28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doi:10.2307/1126465
- Shaw, D. S., Bell, R. Q., & Gilliom, M. (2000). A truly early-starter model of antisocial behavior revisited.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3(3), 155-172. doi:10.1023/A:1009599208790
- Shaw, D. S., Dishion, T. J., Supplee, L., Gardner, F., & Arnds, K. (2006). Randomized trial of a family-centered approach to the prevention of early conduct problems: 2-year effects of the family check-up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1), 1-9. doi:10.1037/1022-006X.74.1.1
- Sitimina, S. A., Fikryb, A., Ismail, Z., & Husseinb, N. (2017).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in Malaysia. *Procedia Computer Science*, 105, 345-352. doi: 10.1016/j.procs.2017.01.232
- Sui, O. L., Spector, P. E., Cooper, C. L., & Lu, C. Q. (2005). Work stress, self-efficacy, Chinese work values, and work well-being in Hong Kong and Beij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2(3), 274-288. doi:10.1037/1072-5245.12.3.274
- Trotter, H., & Rafferty, H. (2014). A follow-up to the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me: The reflections of mothers one to two years later. *Educational & Child Psychology*, 31(4), 40-57.
- Querido, J. G., Warner, T. D., & Eyberg, S. M. (2002).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2), 272-277. doi:10.1207/S15374424JCCP3102_12

논문투고: 17.10.15
수정원고접수: 18.01.12
최종게재결정: 18.01.24